

“변화와 도약의 해...살기좋은 구례 만들 것”

올해 새해설계

김순호 구례군수

지역활력다운 조성 본격화·채류형 관광 거점 조성 밀 사업 확대·흙살리기 사업...지속가능 농업 추진

“2025년을 변화와 도약의 해로 삼고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미래 농업 육성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구례를 만들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구례가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한 해였다”며 “생활인구 통계에서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1.8배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4천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500억원 규모의 지역활력다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오산케이빙가가 전남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올해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리산 정원이 전남도 지방정원 제3호로 등록돼 생태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김 군수는 2025년을 ‘변화와 도약의 해’로 정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



환경 개선, 관광산업 발전, 미래 농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활력다운 산에마을을 중심으로 청년주택과 농촌 유학타운을 조성해 젊은 세대와 도시민의 유입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사기록관과 청년스토어를 통해 지역 문화와 경제를 연결하며, 청년 희망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칠의대대 이전 부지에 섬진강 그린캐이션을 조성해 채류형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온천지구에 산수유 스카이워크와 힐링꽃길을 조성해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암지구는 지리산역사문화관과 반달 가슴곰 보금자리를 연계해 생태·문화관

광 중심지로 육성하며, 지리산 정원은 산림교육센터와 나만의 별장을 신규 조성해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정주환경 개선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구례읍 도시재생사업과 웰니스복합센터 조성, 섬진강변 사계절 꽃길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삶 질을 높이고, 미디어 파사드 분수 설치로 야간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하 취약지역 개선과 상시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구례를 만들 방침이다.

미래 농업에서는 구례밀 산업을 확대하고, 흙살리기 사업과 저탄소 농업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태추 단감 생산단지와

수박 수직 재배 등 지역 특화작물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복지 부문에서는 매천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단정하고, K-푸드 특성화 학교를 조성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경로당 입식 테이블과 의자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출생기 본수당 지급 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호 군수는 괴테의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 구례의 더 큰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며 “변화의 중심에 군민의 협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여수 자연유산, 채류형 생태관광지로 ‘탈바꿈’

백도·향일암·홍곡사 등...생태·스텝 투어 마련

여수시가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명승)을 활용한 채류형 생태관광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상백도·하백도, 영취산, 홍곡사 등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자연유산 스텝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채류형 생태관광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의 주요 자연유산으로는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상백도·하백도 일원’, 2022년 43년 만에 이름을 올린 ‘금오산 향일암 일원’, 지난해 명승으로 지

정된 ‘영취산 홍곡사 일원’ 등이 있다. 특히 상백도·하백도는 39개의 무인 군도로 구성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기암괴석과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흑비둘기, 장박새 등 희귀 조류와 아열대 식물 353종, 해양식물 70여종이 서식하는 천연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향일암’은 돌산도 끝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년 새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다. 자연암석으로 이뤄진 해탈문과 동백나무 숲, 거북모양

지형 등 독특한 경관과 더불어 역사·학술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영취산은 대한민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 하나로, 봄철이면 진분홍빛 진달래가 만개해 상춘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산 중턱의 홍곡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활약으로 호국불교의 성지로 알려졌으며, 보물로 지정된 소조사천왕상 등 18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연유산도 단순 관광을 넘어 치유와 힐링을 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시가 관내 주요 자연유산(명승)을 채류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상지 중 하나인 영취산 정상사의 진달래 군락(왼쪽)과 종턱에 자리한 홍곡사 전경. (여수시 제공)



광양시,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보습제 지원

만 18세 이하 1인 연간 20만원 이내

광양시는 6일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아토피피부염 (L20), 천식 (J45)으로 진단 받은 만 18세 이하의 취약계층 환아다.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중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또는 진료비를 1

인 연 20만원 (예산 범위 내)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일 이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급여·비급여 지원이 가능하나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보습제는 분기별 2개씩 제공된다.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한 아토피성피부염 환아의 보습제는 중위소득 150%까

지 확대에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증빙 증명서, 알레르기 질환 확진 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당해 연도 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광양시보건소 도시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해정 도시보건과장은 “의료비, 보습제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물, 설 명절 전품목 최대 40% 할인

24일까지 한우·버섯·사과 등...무료배송 이벤트도

곡성군은 6일 “오는 24일까지 새해를 맞아 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설 명절 특별 기획전(포스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곡성물에서는 명절 선물 고민을 덜 수 있도록 한우, 버섯, 사과, 한과 세트 등 전 품목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해 부담 없는 금액으로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새해 덕담 작성 시 100명을 초청

해 1만원 할인 쿠폰 지급하는 이벤트와 신규 가입 시 3천원 할인 쿠폰 지급, 전 상품 무료배송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곡성물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물에서는 작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곡성심정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들도 더욱 알뜰하고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졌다. /곡성=김영필 기자



정홍균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천관디엔씨와 ‘천관산 관광·휴양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정홍균 제공>

장흥 ‘천관산 관광·휴양 복합단지 개발’ 추진

(주)천관디엔씨 438억 투자...어린이·동물테마파크 등 조성

장흥군은 “최근 (주)천관디엔씨와 ‘천관산 관광·휴양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천관디엔씨는 관산을 옥당리 7만9

천300㎡ 부지에 438억원을 투자해 관광·휴양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거부지에는 주거형 주택단지 74세대가 조성돼 분양될 계획이며 관광·휴양

부지에는 어린이테마파크, 동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들어선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

담양군,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원예·축산 등 16개 사업...내달 3일까지 신청

담양군은 6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한 잘 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분야에 청년농업인 4·8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인력육성 분야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등 2개 사업, 식량자급 분야는 농작물(벼) 안정생산 병해충 방

제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원예특작 분야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축산기술 분야는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축박 배기팬 설치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 공고 또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희망 농가는

해당 읍면의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해 사업별 추진 계획을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오는 20일부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현지 평가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용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장은 “신기술보급사업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5억4천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주민 현장 소통 행보

13일까지 11개 읍·면 찾아 주민의견 수렴·군정 반영

장성군은 6일 “오는 13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민과의 대화’는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주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복지·농업시설, 주요 사업현장, 기업체 등도 방문한다. 올해 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6일 동화·황룡면 ▲7일 장성읍·서삼면 ▲8일 북하면(오후) ▲9일 북이·북이면 ▲10일 삼서·삼계면 ▲13일 진원·남면 순이다.

특히 ‘읍면 발전토론’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 이목을 끈다. 장성군은 읍·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보

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불편사항, 분야별 건의사항 등도 폭넓게 청취한다.

김한중 군수는 “군민 목소리를 한층 깊이있게 군정에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섬김의 군정 추진으로 ‘기회와 성장의 2025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